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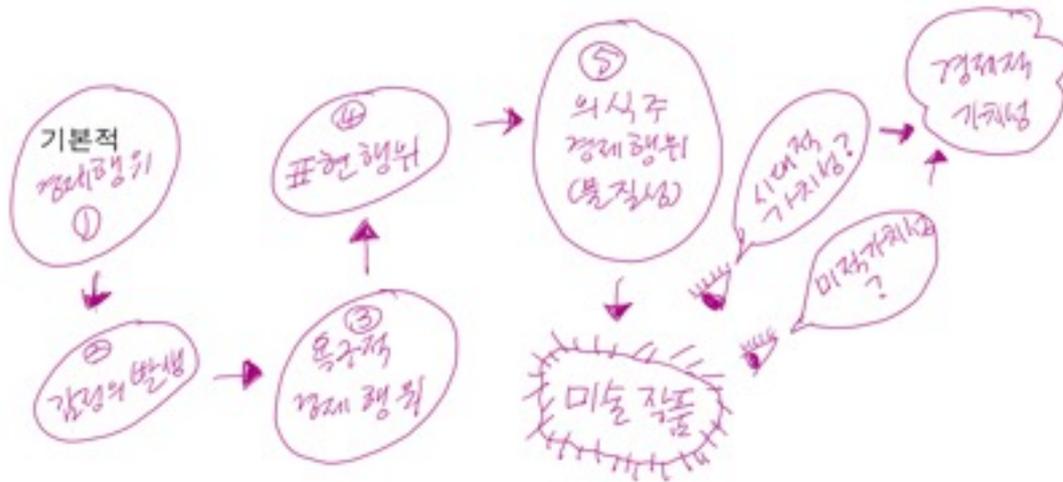
12회 영국사랑 열린 강좌 교재

7월 31일/ 경제와 미술

< 예술과 사회과학 1 > 1. 경제학과 미술

예술과 예술사(미술사)는 사회와 경제 조건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만나 나타난 현상이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삶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화의 흐름에 접근할 수 없고
이 문화의 흐름에 접근하지 못하면
오늘날 미술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미술은 경제적 행위와 관념적 사고가 구조를 이루고 만나는 지점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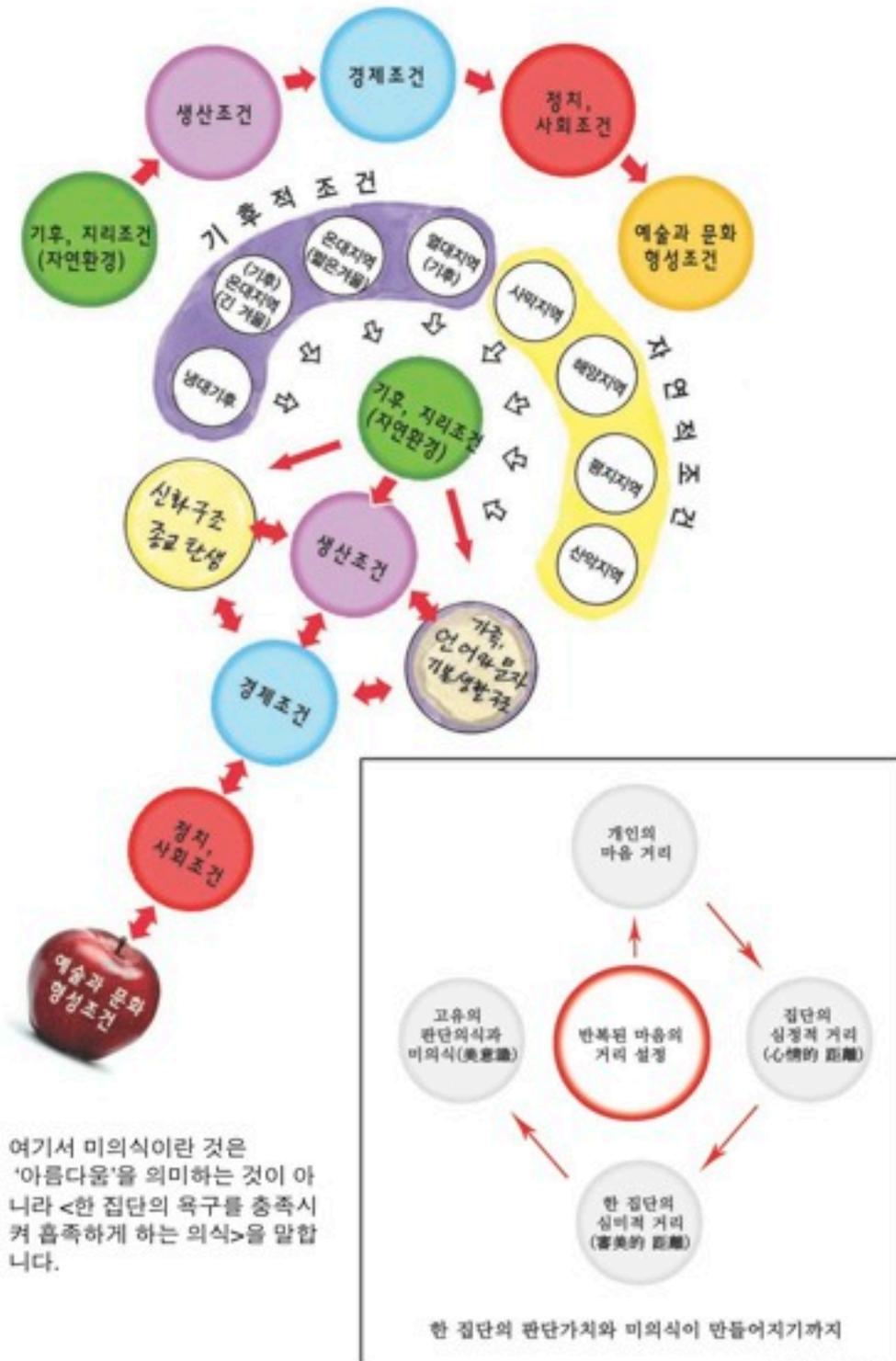
오늘의 경제현상으로 나타난 현재적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 주변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미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박제된 미술, 죽어서 미술관에 걸려있는 미술 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친절한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스스로의 눈을 죽이는 이 친절한 설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보면서
그 미술작품을 의미를 말살하고 스스로의 눈을 죽이게 됩니다.
해설자의 설명으로 그것을 보려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눈을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미술작품은 종합적인 3중 구조(경제, 사회, 문화구조)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입니다.
이번 열린강좌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으로 접근하며
미술과 작품으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 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서 영국사랑의 후원으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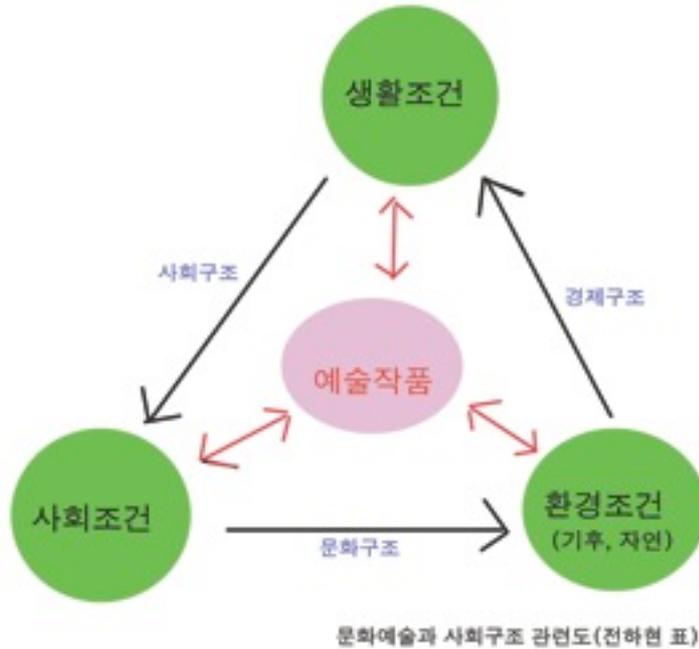


한 집단의 문화와 집단의식이 형성되기까지 조건과 과정





그 지역의 기후와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진 환경조건은 경제구조를 조성하고 경제구조는 생활조건을 다시 형성한다.이 생활조건은 다시 사회구조(정치구조, 법구조, 관습구조, 종교구조 등)을 만들고 이것은 다시 문화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 문화구조는 다시 새로운 자연과 기후조건을 극복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조건을 만들게 되고 또 이 환경조건에서 의식을 형성한 제 2세대들이 새로운 경제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 3 조건은 끊임없이 진행되며,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게 되며 반복하고 이 진행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총체적 문화사다.

이 문화인류사의 부분적인 전개 속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결과가, 사회사와 정치사, 경제사, 문화예술사로 나타난다.

이 3 조건(환경, 생활, 사회)과 3 구조(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서 3 조건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며 때로는 조율하며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중앙에 형성된 예술작품이다. 특히 예술문화사에 인정을 받은 작품은 바로 그 시대의 이 3구조를 반영한 총체적 집약체의 결과로 나타난다.

미술사 구조와 경제사 구조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아주 순진하고 무지스런 아이의 시각과 같이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의 가치를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제한한 어리석음에서 실수하고 이같은 실수는 수천만의 희생자를 낳게 했다. 무지스런 환상을 인류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인간도 바로보지 못했다.



존 케인즈, 사무엘슨 등이 바로보지 못한 것이 욕망에 지배되는 시장 논리,
미술의 역사란 확장된 욕망의 역사

경제와 미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욕망의 확장된 표현일 뿐이고 그러므로 미술과 경제는 다른 욕망의 확장사, 확장의 역사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경제생활과 경제관계로 시작되어 그 것은 문화란 위장된 욕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

경제란 욕망이고 경제이론 이 욕망이 만나고 실현되는 것을 들여다 보고 적어놓은 기록일 뿐이다. 예술이란 이 욕망을 꾸며놓거나 풀어헤쳐놓은 것이거나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미술, 예술문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분야는 미술이론도 아니고 미학도 더더욱 아니다. 어떤 인문학과의 관련보다도 경제사와 경제이론과 미술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미술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경제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술발전과 변화의 주도권을 경제가 쥐고 있다. 즉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예술의 변화를 읽어낼 수 없다.

미술사뿐만 아니라 예술문화사는 경제 변동사의 외부 변동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그 나라의 예술사조는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의 외변적 표현일 뿐이다. 그러나 경제사의 주도가 예술문화사의 주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이론이 예술이론과 일정한 상관 관계를 이루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 예외적 상황을 우리는 영국 문화사에서 엿볼 수 있다.

경제와 미술의 불일치는 첫째 19세기 영국에서 '고딕 부활 운동'과 '라파엘 전파', 그리고 윌리엄 모리슨의 '수공예 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 이론은 예술사조와 함께 병행한다.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존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 폴 사무엘슨의 <거시경제론적 시각>이후, 경제학이 길을 잃은 것과 현대미술이 길을 잃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사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예측을 하지 못하면 미술이나 그 밖의 문화콘텐츠 (음악, 패션, 영상미디어, 건축) 등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술문화가 경제상황과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일치 혹은 호응과 부정 혹은 냉소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14세기의 플라미시 미술은 당시 프랑드르와 경제상황과 일치하고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네덜란드와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공국에서 진행된 미술사조도 그 지역과 경제적으로 일치하고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진행된 미술사조는 당시 경제와 부정 혹은 냉소적 표현과 불일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일치와 호응, 부정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사의 실종과 미술사의 실종

<경제의식과 미의식>

예술을 형성하는 것이 미의식이고 이 미의식,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경제의식이다.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미의식을 만든다.

-질문1 -

어떻게 경제의식이 미의식의 가치 판단을 만들고 미의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와 예술>

미술, 예술문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분야는 미술이론도 아니고 미학도 더더욱 아니다. 어떤 인문학과의 관련보다도 시장경제와 예술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사는 예술사와 함께 굴러가고 경제이론은 미술이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이것은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경제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술발전과 변화의 주도권을 경제가 쥐고 있다. 즉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예술의 변화를 읽어낼 수 없다.

-질문2-

경제상황이 어떻게 패션에선 유행을 만들어내고 미술에선 그 시대의 조형언어를 만들어 만들어낼까요?

<경제사와 예술사>

미술사뿐만 아니라 예술문화사는 경제 변동사의 외부 변동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그 나라의 사조는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의 외변적 표현일 뿐이다.

그러나 경제사의 주도가 예술문화사의 주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이론이 예술이론과 일정한 상관 관계를 이루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 예외적 상황을 우리는 영국 문화사에서 엿볼 수 있다.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존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 폴 사뮤엘슨 이후, 경제학이 길을 잃은 것과 현대미술이 길을 잃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질문3-

경제사와 예술사는 어떤 관계를 맺고 그 흐름과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까?

<경제로 예술을 전망하고 예술로 경제를 전망?>

경제사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예측을 하지 못하면 미술이나 그 밖의 문화콘텐츠(음악, 패션, 영상미디어, 건축) 등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술문화가 경제상황과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일치 혹은 호응과 부정 혹은 냉소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만 한다.

경제를 주관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의 흐름을 주관하고 그것을 조종하고 움직인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다. 그러나 이 경제를 주도한 욕망은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물학적 욕망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이었다. 관념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란 상상력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 나타난 욕망이다.



고대 사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신전을 짓거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후세계를 위해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짓고 황금과 보석,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향료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것을 찾아서 대부분의 재화를 투자하고 소비했다.

19세기까지 수 만년 동안 인류의 경제활동은 이러한 관념의 세계, 판타지를 위한 상상력의 세계를 위해서 대부분 소비되었고 서민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기본적 의식주를 위한 최저 생계를 제외한 잉여생산물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받치거나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칼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의 가치에서 잉여가치로 설명하고 그것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와 자본가란 아주 단순한 대상으로 이분화하고 그것을 적대적 관계로 도식화하는 실수를 한다. 이같은 실수는 모든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욕망이 경제를 주관하고 이 욕망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부정하고 그것이 계급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단정하며 계급적 투쟁으로 끌어내 100년도 안된 이 모순적 투쟁사에 수 천만의 인류를 학살시키고 말았다. 지금도 마르크스의 허구적 이론은 이 경제적 환타지를 믿고 투쟁을 버리고 있는 전사들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은 20세기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경제학에서 실물 경제의 범위로 다루고 있는 경제활동과 경제재는 오직 이것, 관념의 세계를 위한 부속물이었을 뿐이었고 이같은 현상은 현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욕망은 기본적인 욕망이 아니라 욕망이 스스로 재생산한 욕망의 욕망이다. 재생산한 욕망의 욕망은 다시 욕망을 생산하고 그 욕망은 또다른 욕망을 끈임없이 생산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타난 욕망이 시장경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욕망들은 이 욕망의 욕망을 위한 욕망의 실천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발달된 선진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욕망은 먹고 살고 입기 위한 기본적 생계를 위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망 보다도 '상상의 세계' 와 허영적 욕망이 주도하고 있다. 의식주를 위한 생존 경제는 오직 그것을 위한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수단이 되고 있는 중이다.

욕망과 예술

이 욕망 들이 다시 구체화되며 상승된 욕망으로 변환될 때 나타난 것이 예술이다. 예술은 모든 욕망을 표현하고 그 욕망을 드러내고 구체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예술은 욕망을 재생산한다.

이 재생산은 경제적 행위를 통해 경제적 생산으로 나타나고 다시 이 경제행위는 새로운 판타지(상상세계 혹은 관념의 세계)를 구축하고 이 판타지가 새로운 예술 방법을 만들게 되며 이같은 과정에 정리된 생각들이 새로운 예술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고대미술, 이집트의 미술의 케논 1/23 이 그림에서 나타나게 된 것,
피라미드가 끈임없이 변형을 이루며 나타나게 된 배경,
14, 15세기, 피렌체 미술이 르네상스란 사조를 만들게 된 것과
16세기, 바로크가 나타난 것,
17세기, 로코코의 경제사적 배경,
18세기, 신고전주의 태동배경,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데 스틸 운동과 독일에서 바우하우스가 나타나게 된 배경



영국사랑에서도 지난 간추린 열린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국사랑 열린강좌는 [팟캐스트\(클릭\)](#)에서 구독 가능하며 밑에 리스트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1강 : 보통사람 속에서 보통성을 극복하기1 - 무엇이 콘텐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2강 : 보통사람 속에서 보통성을 극복하기2 - 보편성과 보통성을 이해하고 몸에 붙이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1강 : 한국과 영국의 문화구조1 - 다중적 구조사회에서의 생존법](#)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2강 : 한국과 영국의 문화구조2 - 다중적 구조사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1강 : 미술이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2강 : 미술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1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1 -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세계](#)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2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2 -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새정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1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1 - 영국의 미술사와 유럽의 미술사](#)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2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2 - 왜 영국에서 미술이나 예술공부를 하는거죠?](#)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1강 : 감동을 주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2강 : 감동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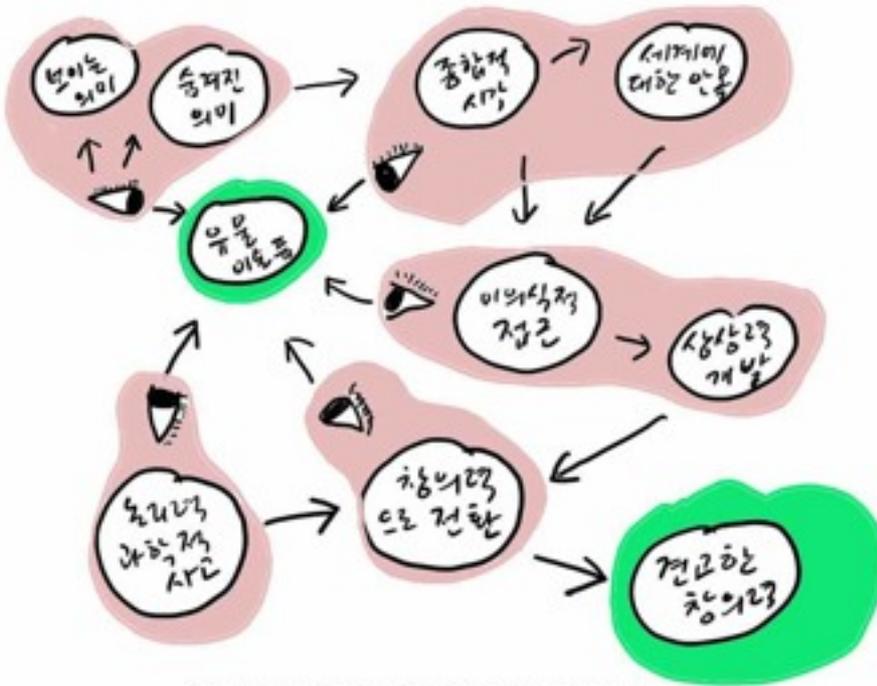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회 ~ 5회](#)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는

문화, 예술, 창조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런던의 열린학 교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거리와 시장, 뒷골목을 강의실로 하는 현장 문화 학교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강좌>와 <세계 문화사와 미술사>, <미학>, <철학및 예술철학> <창조산업 분야 경영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 교재/ Rp' INSTITUTE <전하현>

2004년부터 시작한 런던 문화학교는 약 1,7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현직 교수와 교사 등에서 초중고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런던 문화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버지니아 울프와 경제학자 존 케인즈, 평론가 로저 프라이 등이 모여 토론을 했던 런던의 중심가, 블룸스버리의 퍼브 등지에서 5회의 열린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좌는 <감동의 기술>, <그림 값으로 본 서구문화와 한국문화의 구조, 1,2차>, <여자인가?> 등의 주제로, 현재까지 약 700여명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강사, 전하현,

시인으로 등단하고, 미학, 동양철학, 미술사 강사로 활동하며 3권의 시집등 8권의 저서를 펴 냈, 그외 현대무용연출가로 무용대본작업과 연출 작업을 하고 보석디자이너와 미술평론, 문화평론 등을 신문 등 언론매체에 정기 기고하고, 런던에서 다시 미디어(영화, TV 프러덕션), 예술경영론을 전공하며 인테리어 디 자이너로 활동한 경력등 예술전반에 대한 실무와 이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저서/ 세계 예술사 문화사 <인상주의 >, <인상주의 2권> 책 저술, 미술사 해설서 <바르비종과 사실주의>펴냄 <스물이되기전에>저서나옴



2013년에 열린 강좌의 주제들

6월 27일(목); <21세기의 특별하게 살아남으려는 창조산업 엘리트를 위한 커리큘럼>

6월 15일 강연회; 베스트셀러와 세계문화예술사와 그리고 감동의 만남

6월 6일 강연회; <21세기의 특별하게 살아남으려는 창조산업 엘리트를 위한 커리큘럼>

5월 3일 강연회; 패션, 시각디자인, 출판, 미디어(영상), 귀금속, 산업디자인, Visual Art,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세계적 콘텐츠 만들기/ 작업실

4월 19일 강연회;<세계문화사의 본질적인 문제와 한국과 영국의 문화사의 전개>, 킹스톤

4월 11일 강연회; <꿈꿀 권리와 열린 눈>

4월 5일 강연회; <우리가 그동안 열망했던 것들에 대한 회고와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

3월 29일 강연회; <감동의 기술>, 브라이튼 카페

2월 23일 강연회; 박물관에서 예술사 강의(에게 문명, 크레타 문명 문명)/ 옥스포드 뮤지엄

2월 9일 강연회; 미술사란 무엇인가? 미술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 앨버트

1월 17일 강연회: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 크라운 퍼브

2012년 주요 런던 강연회

12월 19일 마지막 열린강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미술사/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21세기 엘리트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두 키 워드

10월 5일 강연회;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영국 사회읽기> 2번째 강연/ 영국사회로 본 한국 사회구조

9월 28일 강연회; 사회문화강좌, 범죄 드라마로 분석한 영국사회

9월 4일 강연회; 에게문명과 아마르나 문명

8월 28일, 2차 <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강의

8월 17; 덜위치 갤러리, 네덜란드 미술과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8월 4일; 문화예술강좌/고딕-르네상스의 하이브리드 예술

7월 22일; 문화강좌/Sex & Sexy, Fashion & Passion, Money & Desire

7월 20일; 현대미술 강좌/<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6월 29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 그리고 오늘

5월 30일; 20세기 문화사 강좌/ 3개의 패러다임

5월 12일; 문화기행 강좌/ 리버풀 시티에서 만나는 빅토리안 건축

3월 30일; 현대미술과 페미니즘/ 야요이 쿠사마

3월 29일; 주영 한국 대사관(런던)에서 강연회

3월 22일;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강/ 21세기 초두를 이끌 문화, 환상주의 (FANTASISM)

2월 28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차 강좌

2월 16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월 15일; 미술사 강좌/ 바르비종파가 바꾼 세상의 풍경들

2월 9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양강좌/ 여자란 무엇인가?

2월 2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2차 강좌/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1월 21일; 문화와 사회 현상강좌/ 이미지로 읽는 오늘의 사회

1월 19일; 창조산업 강좌/감동의 기술, 감동을 시켜야 뜬다!

1월 7일; 현대미술강좌/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개

1월 6일/ 문화예술강좌/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1 브라이튼 뮤지엄 강좌/문화예술로 본 영국인, 영국인은 누구인가?